



## 머리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향하는 문

꽃망울이 움트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를 사순 시기로 초대합니다.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얹힌 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느님께 돌아가는 시간. 그 길 위에 우리 교정사목 봉사자 여러분도 함께 서 계십니다.

사순은 '비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일 한가운데 시간을 내어 교정 현장을 찾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비우고 계십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조정하고, 직장과 가정의 일정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어 봉사 자리를 지킵니다. 남들이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에, 혹은 가장 바쁜 평일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수용자를 만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애써 준비한 것들이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듯 보여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

사순은 바로 그 질문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성과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한 번의 인사, 한 번의 경청, 한 번의 따뜻한 눈 맞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나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거창한 변화를 단번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작은 틈을 마련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의 길은 광야의 길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비어 있고 고요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교정 현장도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더디고, 벽은 높아 보이고, 우리의 힘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는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이며,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께서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 안에 심긴 사랑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실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순,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충실함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기, 한 번 더 믿어주기, 한 번 더 존중해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지기. 봉사로 지친 마음을 기도 안에서 쉬게 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며, 우리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처음 마음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감사패 수여



지난 2025년 12월 29일 고봉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살레시오 회 최남식 베드로 신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에는 봉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축하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1월 24일(토)~25일(일) 1박 2일, 경기도 가평에서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정민하 율리오 위원장 신부를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희망은행 2026년 사업 분야 과제 등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지원으로 많은 대상자가 사회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2월 9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사제 서품식 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정사목에 오게 되어 4년 동안 함께하며,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라며, “하지만,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기예, 저는 그저 도구의 역할에만 충실해야지 자꾸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4년 동안 만난 봉사자와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교정사목을 떠나는 송정섭 시몬 신부의 송별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송정섭 시몬 신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인사 발령



2월 19일(목)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경찰사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우요한 세례자요한 신부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직무를 맡은 우요한 신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5차 이사회



2월 20일(금) 명동 교구청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35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윤병길 이사장 신부를 비롯하여 이사, 감사들과 2025년 결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사목을 위해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강현숙 클라라 /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평생 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합리성과 논리만을 따지고 오만하게 살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억울함에 분노하고 삶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게 하나 없고, 거부할 힘이 있으신데도 극악한 십자가형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폭 빠져서 늦은 나이 50에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이방인들의 사막으로 들어가신 샤를 드 푸코 성인(2022.5.15. 시성)의 영성을 본받고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여사에서 잇을 수 없는 첫 미사뿐 아니라 모든 미사는 담장 밖의 어느 성당에서도 느낄 수 없는 별빛 같은 감동의 시간이었고, 그날 저녁 일기장에는 벽찬 감사를 적어놓으며 일 년의 시간을 보낸 저는 초짜 봉사자 클라라입니다.

독서와 보편지향기도를 서로 바치겠다는 귀여운 경쟁과 순수하게 떨리는 수용자들의 목소리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인자하시고 흐뭇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어느날 “제 목주가 낡았는데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리에 무심코 쳐다본 순간, 어느 신실한 수용자의 (말 그대로 닳고 너털너털해진) 목주는 저를 몽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될 때까지 기도 올리는 저 어여쁜 영혼을 성모님이 밤마다 안아주시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5년 동안 ‘난 얼마나 진심으로 목주기도를 했나?’ 생각하며, 돌아보니 참으로 창피해서 처절한 반성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미 의회 연설 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 페트릭 성당에서 노숙자들과 식사하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여러분, 걷다 보면 누구나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잘 씻기 바랍니다”라며, 재소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온 지난 시간 속에서 죄인이었던 제 마음속의 발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곳에서 회개하며 함께 발을 씻어야겠구나.’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막을 내린 2025년 정기 회년의 은총 열매들이 올해 2026년에 새로운 회년의 연장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정기 회년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지상의 삶을 마치고 천상으로 건너가신 지(1226년 10월 3일) 800주년을 기념하여, 레오 교황님께서 회년을 선포하시고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자비와 평화를 청합니다.

무장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어둠을 지나 꽃피울 아름다운 아이들”



권희진 정혜엘리사벳 / 더꿈다교육공동체

3월의 시작, 재의 수요일을 맞아 우리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먼지’라는 단어에서 “선생님 저는 좋은 사람이 아녜요.”라며 자신을 길가에 나뉘구는 먼지처럼 여기는 교정시설의 청소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 앞에서 스스로 나쁜 사람으로,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아이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표정은 “나는 먼지야.”라는 절망의 고백이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 된 청소년 수형자들과 준법지원센터에서 소년 수강명령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원예치료사입니다. 원예치료사는 식물 그 자체와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식물은 관심 밖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록 식물과 알록달록한 꽃들, 그리고 먼지처럼 보이는 흙을 손으로 만나는 순간, 죽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살아납니다. 흙을 만지고, 꽃을 꽃고, 식물의 향기를 맡는 동안 아이들의 눈빛은 분명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방어진인 표정과 말은 말 없는 꽃과 식물을 대하는 시간 속에서 기적처럼 사라집니다.

식물은 아이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묻지 않고, 오직 지금 내미는 손길에만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식물의 이런 치유력이 단단히 굳어 있던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보드라워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만날 때 저는 아이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부활을 봅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음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순간은, 꽃꽂이할 때입니다. 하루 종일 표정 없던 아이가 “선생님, 저 장미 한 송이 더 가져가도 돼요?”하고 수줍은 얼굴로 묻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타인을 향해 마음을 내어주는 그 순간, 아이들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곱고 여린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진심 속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까. 상처 입은 아이들이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꽃잎을 다듬는 그 손길 위에 계셨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이 아이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에제 36,26)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구처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유독 모진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람에 흔들려야 줄기가 단단해지고, 어둠을 통과해야 꽃의 색이 더욱 짙어진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통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뽑히지 않게 그들의 마음 받을 더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비난의 가시는 걷어내고, 용서와 자애의 거름을 채워 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닮아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사순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매마른 먼지 같았던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스며들면, 반드시 꽃은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먼지’가 아니라 꽃을 피워낼 ‘귀한 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아이들이 사회라는 화단에 다시 뿌리내릴 때 따뜻한 햇살과 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피워낼 향기는, 그 어떤 꽃보다도 깊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원예치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



## 멘토를 찾습니다 (2)

장선숙 교감 / 의정부교도소

빛의사람들 2월호에 이어>

어머님은 OO가 구속된 후 손녀를 돌보며 식당 일을 하러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 미각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분식집을 하기 위해 둔해진 감각을 깨우며, 시행착오를 거쳐 어머님만의 조리법으로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김밥과 떡볶이, 토스트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단짠, 꼬들, 쫄득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우영 김밥과 매콤 김밥을 가지고 오셔서 조용히, 그리고 깊게 인사하십니다. 처음엔 자신 없었는데 오래전 식당을 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요즘은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내 장사라는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OO 옆에 어머님이 계심이 더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휴식 없이 네 시간 반을 운전하느라 다리에 쥐가 났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아직 SNS에 홍보도 안 했는데 맛있다며 댓글 올려 주는 고객들 이야기를 하며, 매장이 덜 바쁠 때는 배달비를 줄이려고 직접 뛰어다니고, 그릇도 중고 용품을 사용하며, 당당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속 전 가족들의 생계비를 빌려주고, 심지어 출소 후 파산신청 비용이 절실할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수용 중은 물론 지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적 사법, 회복적 교정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계장님, 출소하고 나니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장 챙겨야 할 가족들만 있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서 창업지원금 꼭 완납해서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록이 계장님의 애정을 받았다는 것을 뜻깊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또 뵙는 날까지 코피 쏟고 있을게요. 의정부 계장님, 주임님들께 그때도, 지금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당당히 고개 들어 저를 알릴 수 있을 때 꼭 찾아뵙게요.”

수시로 연락하며 고충 상담해 주고, 응원하고, 휴가까지 내어 면접 동행하고, 직접 추천서를 써주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응원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는 ‘OO의 사회복지 멘토’가 되었고, 나는 그 후배를 ‘교정 멘티 1호’라 부릅니다. 단지 후배의 노력에 경험을 조금 보냈을 뿐인데도 이렇게 과분한 인사를 받으며 행복한데 제 교정 멘티 1호는 얼마나 뿌듯할까요? 우리 사회가 바라고, 특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끼는 후배를 통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교정 멘티 1호에 이어 2호는 이제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던 수용자를 애정으로 지켜보는 중입니다.

출소 후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으로 인한 피해자이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회복지에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보이거나 불법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때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 교도소 주변을 쳇바퀴 돌기도 합니다.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가족관계로 힘들어하곤 하는데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몇 사회복지자와 단톡을 하다 갑자기 개인 특이나, 전화가 올 때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계장님, 아이의 생부가 예전에 같이 지낼 때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썼다고 저를 절도로 고소하겠다고요. 이제는 전과가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큰돈을 요구해요.”

“계장님,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요. 우리 애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계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수용 중일 때 혼자서 동생을 챙겨 주었던 큰딸이 반항하며 자해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 주변에 소소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은폐하고 회피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손길을 선뜻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보태어 기존의 부정적인 지지체계 대신 긍정적인 지지체계로 바꾼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고 그와 함께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곳, 많은 사람과 사회로부터 버려진 그곳에서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고 출소 후까지 지켜봐 준다는 그것은 그들에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싶은 순간을 붙잡아 줄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 주저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OO에게 박 계장이 했던 것처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언할 대상자가 생기면 자신의 역량껏 돕다가 보충할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보태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담당업무에만, 수용 중에만, 많은 수용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관심이 있는 수용자 중 자신의 범행과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고, 사회복지 후에도 오랫동안 지켜봐 주고 싶은 이가 있다면 업무가 바뀌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 후에도, 그리고 출소 후에도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거나 경험이 없어 두려움으로 망설여진다면 가까운 경험 있는 선배에게 자문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회복지자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누군가는 내밀어 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본 글은 장선숙 교도관의 저서 『왜 하필 교도관이야?』에 수록된 「멘토를 찾습니다」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연재합니다.

## 4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카카오톡 채널

### ● 행사 알림

- 3월 9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3월 6일(금), 9일(월), 12일(목)~13일(금), 16일(월), 19일(목)~20일(금), 23일(월)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국군교도소
- 3월 14일(토)~15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서원동 성당
- 3월 18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3월 20일(금) 서울북부보호관찰소 2차 보호자 특별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3월 23일(월)~25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 3월 30일(월)~4월 2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1/15~26/02/14)

2026년 1월~2월에는 구경모, 토마스무어, 이성찬 다니엘, 정원주, 조덕환, 최명순 데레사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정우, 주식회사 광화문랩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